

사서교사가 만든 중앙여자중 · 고등학교 도서관 _1956년부터 2006년까지

| 서경은*



학교도서관에 근무하면서 그 현실에 절망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지만, "학교도서관은 모든 관종(館種)의 기초이며, 학교 교육의 중심이다."라는 믿음으로 글을 쓰고 도서관을 꾸려왔다.

다음의 기록이 학교도서관을 이해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물론 1964년부터 현재까지 도서관 전담 사서교사를 채용하고 있는 본교의 이야기가 전체 학교도서관의 사정과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학교도서관의 부침(浮沈)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중앙여자중 · 고등학교는 1940년 '경성가정여숙'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그리고 1956년 학교를 현재의 자리(북아현동)로 옮기면서 27.5평, 72좌석 규모로 도서계 담당의 국어교사가 반 개가식 도서관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1964년 전담 사서교사 1명(수업 12시간 담당)을 맞아 완전개가제로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학교 관련 자료도 함께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누락된 학교 관련 자료(출판 인쇄물, 사진 자료 등)를 더 많이 구하기 위하여 1975년 학원 창립 35주년을 기하여 시작한 '학교연혁자료 전시회'는 지금까지 도서관의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전담 사서교사가 첫 부임한 1964년부터 현재까지 본교 도서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는 것은 독서교육이다.



〈초창기 도서실에서 독서하는 모습〉



〈한 학생이 도서실에서 책을 고르는 장면〉

그러나 1970년대 들어서면서 지나친 입시경쟁으로 학부모들의 관심과 학교의 당면과제가 점차 입시 중심으로 기울어지다보니 독서교육이 점점 힘들어

* 서울 중앙여자고등학교 사서교사, snose@paran.com

졌다. 이에 따라 본교 도서관도 다른 학교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침체기로 접어들어 학생들의 이용이 줄어들고 독서 환경도 열악해졌다. 그러다가 1974년 학원 내 대학이 설립되면서 대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을 사서교사가 함께 맡았다.

1994년 대학입학 제도가 다소 바뀌면서 학교도서관 역할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 2003년부터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학교도서관 활성화 5개년 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중앙여자중·고등학교 도서관도 2003년 리모델링 지원을 받아 새로운 시설과 자료를 통하여 학생, 교직원, 및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있다.

다음의 글은 필자가 부임한 1983년부터 중앙여자중·고등학교 도서관에서 일어난 일들을 도서관 일지와 스탭 매뉴얼을 참고로 하여 연도별로 기록해 놓은 것이다.

1983년 중앙여자중·고등학교 사서 교사로 부임. 재단 내의 대학교 도서관을 함께 맡음.

보조 사서 2명, 4년제 도서관학과 졸업 아르바이트생 1명, 대학교 근로장학생 4명과 함께 일함.

1980년대는 학교도서관의 암흑기로,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도서관에서 빌려간 책을 읽는다는 이유로 학생들은 책을 빼앗겨야 했다. 그 책은 다음날 담임 선생님이 사서교사인 필자에게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돌려주었다.

부임해서 보니 귀한 책들이 참 많았다. 이 귀한 자료들을 왜 교사들은 수업에 활용하지 못하나 하는 의문이 생겼다. 그래서 학년말 직원 연수회에서 교사들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도서관 이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학교장에게도 자료구입비를 현실화해 달라고 귀찮을 정도로 말씀드렸고, 행정실에는 수시로 드나들며 자료구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1988년 가을, 도서관의 대대적인 수리

: 냉·난방 시설 및 창틀 공사.

도서관을 야간 자율학습실로 겸해서 사용함

: 토요일 오후, 일요일, 방학 중에도 사용(중앙여고 졸업생 4명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도록 함).

결국 소수 정예(?)에 대한 집중적인 야간 자율학습을 시켜야 입시 성적이 좋아진다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대세에 밀려 도서관을 야간 자율학습실과 겸해서 사용하게 되었다. 장작을 불쏘시개로 조개탄을 피우고 추위는 면했지만, 좌석마다 번호가 매겨져 좌석 주인이 아닌 학생들은 이용하지도 못하는 등 도서관이라는 말이 무색해졌다. 이때는 방과 후에 책을 보려고 오는 학생들을 눈물을 머금고 돌려보내야 했다.

1992년 학급 수 감축으로 생긴 빈 교실 2칸 반을 도서관만의 공간으로 수리한 후 옮겨감.

기존의 도서관보다 면적도 좁고 본관(本館)과도 더 떨어져 걱정이 되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여름방학 중 1만 5천여 권의 책과 수십 개의 서가를 옮겼다.

1993년 KOLAS를 활용하여 KOMARC로 자료 입력 시작

1992년 겨울방학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발한 전산 프로그램인 KOLAS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었다. 대학도서관을 함께 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PC용으로 개발한 DOS KOLAS 프로그램은 1997년 이후에야 공식적으로 학교도서관에 제공되었다.

KOLAS는 386급 이상의 PC에서 지원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무리 학교 측에 이야기해도 도서관에 지원할 컴퓨터는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중앙여고 도서관 자료에 대한 KOMARC를 종이에 기록해 가서 대학도서관 업무가 시작하기 전에 8시~9시 사이에 그곳의 PC에 입력하기 시작하였다.

1994년 대입 수학능력고사 실시로 인해 독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도서관 이용 학생이 증가하기 시작함.

책을 읽는 것이 대학 입학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발상의 전환은 빈사상태에 있던 학교도서관에 바늘귀 만큼이지만 희망을 준 사건(?)이었다. 그 덕에 넉넉하지는 않지만 자료구입비를 확보할 수 있었고, 외부 장학회에서 여러 해 동안 책을 기증 받기도 하였다. 일단 자료를 확보하면 입소문이 나서 많은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게 된다. 그리고 학생회에서 학교 축제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을 도서 구입비로 써 달라고 내놓기도 하였고, 학생회장 선거 공약으로 도서관 자료 확보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졸업생의 자료 기증 장면〉

1996년 5월부터 중앙여자중·고등학교 도서관만 전담함(행정사무직원 1명과 함께).

드디어 함께 맡고 있던 대학교 도서관에 전담 사서를 두었다. 그래서 중앙여자중·고등학교 도서관에만 전담할 수 있게 되었다. 버리고 별렀던 창고 정리며 소급 자료에 대한 입력까지 어느 정도 마쳐 놓았다.

1997학년도부터 중학교 수업을 맡음.

특별활동으로 '도서반' 지도를 계속 해오기는 했지만 교생 실습 나가서 해보고는 처음인 중학교 국어 수업을 맡게 되면서 걱정이 많았다.



〈도서반 활동 : 2005년 10월 흥대입구, 와우북 축제 참가〉



〈도서실 수업 장면〉

그러나 수업의 절반 정도를 도서관에서 시행해 본 결과 반응이 좋았으며, 도서관 이용에도 자신이 붙는 학생들이 대견스러웠다.

1998학년도 장학 지도에서 도서관에서만 담당하는 독서 지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음.

1999학년도부터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독서지도팀이 구성되어 현재에 이름.

독서지도가 단순히 도서관만의 일이라거나 국어과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학교 전체가 참여하는 독서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연말에는 독서경시대회도 함께 실시하여 시상을 하고 있다. 또 도서관에서는 '도서열람대출증'을 활용하여 독서활동을 격려하고 있는데 다독자에게는 매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발급하고 있다.

2000년 7월 신교사(新校舍)가 완공됨에 따라 옛 도서관 자리였던 자율학습실로 이전하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함. 2000년 11월 교실 사이의 벽을 철거 내어 도서관 구조를 변경함.

도서관 구조 변경을 위하여 매일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망치와 못을 들고 다니면서 철사로 흔들리는 서가를 연결하거나, 줄자를 들고 다니며 위치를 잡아 서가를 옮겼다.

문헌정보학을 공부해서 사서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나를 보면서 실망하지나 않을까 걱정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이 그러니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서교사들은 길으로는 우아해 보이지만 누가 알아주든 말든 내가 맡고 있는 학교도서관을 위해서 손바닥이 꺼슬꺼슬해지는 막노동(?)도 서슴지 않는다.

2002년 서울시교육청 학교도서관활성화 지원(전산화 지원)을 받아 학교도서관 웹 페이지를 제작하여 웹에서 자료의 검색 등 서비스를 실시함.
<http://www.centerlib.org>

1993년부터 시작된 전산 입력 작업에서 단편문학 전집의 내용(소제목), 일반 서적의 주제별 키워드까지 입력하여 교사 및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내 능력이 미치는 한 꼼꼼하게 입력해 놓은 9,800여권의 도서에 대한 MARC 데이터가 있었다. 그러나 DOS용 프로그램이라 웹에서는 활용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웹 서비스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도서관 웹 페이지를 제작하고 서비스를 시작하였더니 모두들 수고했다고 한다. 사실 구축된 데이터가 없으면 엄두도 못 낼 작업이었건만 사람들은 드러나는 것에만 관심을 표한다.

2003년 2월 학교도서관활성화 지원사업(리모델링) 대상학교로 선정되어 옛 도서관 자리로 옮겨갈 명분을 확실히 마련하였다. 7월부터 시작된 공사가 9월에 마무리됨에 따라 도서관을 옮기고 꾸미다 보니 교육청 지원금 및 학교 지원비가 바닥이 났다. 사업의 순조로운 마무리를 위하여 어렵사리 11월 서울시 서대문구청의 지원을 받았다. 2003년 12월 24일 개관행사를 하였다.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먼지투성이의 공사현장에서 미래의 도서관 모습을 떠올리며 인부들과 함께 비지땀을 흘렸다. 2002학년도부터 도서관 자원 봉사를 해 주셨던 학부모들과 함께 리모델링을 하다보니 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백방으로 노력한 끝에 우리 학교가 속한 서대문구의 '학교환경지원과'에서 지원을 받았다. 학생 대표들과 도움을 주었던 분들을 모시고 리모델링 개관 행사를 치르다 보니 교실 4칸의 도서실이 좁았다.

2004년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을 본격적으로 계획, 시행함

새롭게 단장된 도서관 덕분에 교과목 교사들에게 학교도서관 협력수업(LAI)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었다. 직원 연수회에서 학교도서관 협력수업(LAI)에 대한 모형을 직접 제시하고, 교장선생님께서 학교도서관 협력수업(LAI)을 통한 수업방식의 변화를 촉구하셨다. 2006년 현재 6과목이 도서실을 활용한



<리모델링 이후 도서실 모습>

수업을 하고 있으며 많을 때는 주당 25시간 정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공간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학교도서관의 경우 사서교사의 자료 분석 시간 확보를 위해서라도, 학교도서관 협력수업(LAI)은 주당 10여 시간 내외가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2005년 '학부모 독서교실' 운영을 시작으로
2006년 지역사회 주민에게 도서관을 개방함**



〈학부모 독서교실 장면〉

중앙여자중·고등학교가 위치한 곳은 문화적 혜택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이다. 그래서 2004년부터 도서관을 방문하시는 학부모님께 '열람대출중'을

발급해 드렸다. 그리고 내친김에 '학부모 독서교실'을 운영하였다. 4월부터 10월까지 20회를 진행하면서 문집도 내고 전시회도 하였는데 참으로 행복하였다는 학부모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서교사로서의 긍지를 느꼈다.

학부모 독서교실을 진행하는 중에 도서관 자원봉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셨다. 그 분들께서는 지금까지 방학 중에도 나오셔서 도서관 일을 도와주고 계신다.

2005년 5월 '2006서울WLIC' 방문도서관으로 선정됨

'2006서울WLIC' 방문도서관 선정을 계기로 모듬 학습실(25석, 브라우징 룸 겸용)과 도서실 창고(자료 제작실 겸용)를 마련하였다.

2006년에는 도서관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의 열망에 응하여 우리 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해 직원 1명을 추가로 확보하고 40석 규모의 제2열람실을 마련하였다.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개방 시간은 화~토요일 13:00~19:00, 일요일 10:00~19:00(월요일 : 휴관)이다. ☎

도서관으로 ...

시들지 않는 꿈처럼 살고 싶다.

다시 돌아온 새봄

그 찬란한 초록의 물결처럼

내 마음도 다시 피어나고 싶다.

도서관으로

내 꿈을 찾아 간다.

이렇듯 찬란하게 아름다운 새 봄에 -

* 이 글은 나사렛대학교도서관 김영구 사서가 보내주셨습니다.